



(자) 사순 제 4주일

2020년 3월 22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

성 이윤일 요한 한인천주교회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제1965호

홈페이지 www.charlottekoreancatholic.org

◆ 미사 시간

주일미사: 오전 10시 30분

평일미사: 수, 금 오후 8시

목 오전 10시 30분

학생미사: 매월 넷째주 11:50분

◆ 공소 미사

콜럼비아: 100 Polo Rd

Columbia SC 29223

매월 2,3째 토(19:00)

그린빌: 1215 SC-14

Greer, SC 29650

매월 1,3째 일(17:00)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 유아세례/병자성사

사무실로 연락

◆ 본당신부

임종욱 바오로(Jong Uk Lim)

ljupaul@gmail.com

704.531.8417

◆ 사목회장

정병교 시몬

byungjeong61@gmail.com

704.401.9121

◆ 사무실

704.531.8417

stjohnleecharlotte@gmail.com

◆ 주소

7109 Robinson Church Rd.

Charlotte, NC 28215

◆ 미사 전례

• 입당송

이사 66,10-11 참조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
하는 이들과,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
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 제 1독서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6,1-7. 10-13

•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제 2독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5,8-14

•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복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41

“미사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미사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미사가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근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사회적 격리와 함께 크고 작은 피해가 일어납니다. 하루하루 변하는 이 사태에 교구와 본당에서도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대한 3차 대응:

세세한 내용은 주보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oper 주지사 긴급명령과 Charlotte 교구 방침에 따라 추후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사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모임을 중단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구장 Peter Jugis 주교님은 교구민들에게 주일의무를 관면했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주일 미사를 온라인 중계방송을 통해 참석하시거나 대송을 바치시면 됩니다. 미사 중계방송은 미국, 한국 모두 가능하니 편하게 시청하시면 됩니다.

(※ 미사는 없지만 성전 문은 기도하고자 하는 신자를 위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

◆ 미사 중계방송 시청과 주일대송에 대하여...

Peter Jugis 주교님은 이 코로나 시국 동안 주일의무를 관면하시며 교구민들이 온라인이나 TV에서 미사를 시청하고 영적교감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관면이 "TV로 미사 봐도(?) 미사 본(?) 것"이라는 오해를 야기할까 우려하여 그 의미를 풀이합니다.

이 코로나 비상시국에 한국의 개신교는 온라인예배, 방송예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천주교에는 온라인 미사, 방송미사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세례, 고해, 혼배, 성체 등 어떤 성사이든 그 신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성사가 벌어지는 장소(보편적인 감각과 상식의 의미에서)에 사람의 실재 현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병원에 입원한 신자, 감옥에 수감된 신자, 박해받는 지역 신자 등, 주일에 정기적인 미사참례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 그 주일의무를 TV미사 중계를 시청하며 영적 영성체, 곧 신령성체(神領聖體, spiritual communion)를 하고 주일대송(주임신부의 사목 판단에 따라 우리 성당 경우- 목주기도 5단, 주일 독서 및 복음읽기, 선행실천)을 바치는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TV로 미사 중계방송을 보는 것이 그날 미사를 드린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현재 우리 Charlotte 교구와 한국교회가 현재 미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신자들에게 주일미사 TV중계를 보도록 관면하는 것은 정말 미사를 드리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녹화되어 송출되는 그 미사에 마음으로 함께하여 신령성체를 하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우리는 TV로 뉴스도 보고, 오락 프로그램도 보고, 전화를 받거나 밥도 먹습니다. 그래서 **미사 중계 방송을 보며 신령성체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신발을 신고 성당으로 가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신령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정말로 그 신앙의 신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것처럼 내 마음이 경건히 준비되어야 하는데, 진짜 성당에 나와 미사를 드릴 때와는 달리 손쉽게 집에서 미사 중계 방송을 TV로 통해 보게 될 때,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성사의 신비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마음과 영혼이 간절히 거기 있길 바란다면, 자비하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은총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 것, 그것이 신령성체와 주일 대송의 본질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성당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저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 의무를 간편히 해결하고자 TV 미사 중계를 본다면, 그건 신령성체를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의 전례에 동참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미사방송을 시청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본당 홈페이지에 **"성 암브로시오의 미사 준비기도(시청 전)"** 그리고 미사 중계 시청을 마치고 바치실 수 있는 **"신령성체 기도(시청 후)"**를 게시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유의 전염병 확산에 직면하여 각자 집에서 가정 교회로 기도해야하는 오늘입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미사 참례를 못하는 주일에는 가족과 시간을 정해 "준비기도"를 바치고 한국 평화방송 혹은 catholicv.org에 접속하셔서 미사실황을 기도 안에 함께하며 (응송을 주고 받고 성가를 함께 부르며, 예법에 따라 서고 앉으며...) 신령성체를 모시어 남은 사순시기, 거룩하고 복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본당설립 40주년 전 신자 기도 봉헌 합니다.

(2019.9.22.~2020.9.20)

1.목주기도 30만단, 주모경 2.성서쓰기 3.평일미사 참여

1. 2020년 본당 사목표어

"서로에게 따뜻한 신앙인이 되자."

- 1) 상대방의 말을 하지말자
- 2) 칭찬함을 설치합니다
- 3) 가족 간의 장점 찾아서 적기

2.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3차 대응

- 1, 2차 대응은 별개가 아니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본당 미사는 잠정적 중단 되었지만 사제는 사제관에서 혼자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 지향을 넣고 싶은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04-531-8417)

- 주일미사는 온라인미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미국, 한국 둘 다 가능)

- 대송은 목주기도 5단, 주일 독서 및 복음 읽기, 선행실천입니다.

- 주일 강론은 본당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성당을 개방합니다.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성당에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개방시간 9:00am ~ 20:00pm)
- 미사에 오지 않는 관계로 기도 집계는 금요일 20:00pm까지 구역장님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목주기도, 주모경)

- 주보는 프린트하지 않고 본당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 4월 매일미사 책 필요하신 분들은 성당을 개방해 놓았으니 가져가시고 사무실이나 아래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목주기도	이번주: 6,994 단	총: 86,838 단
주모경	이번주: 1,486 회	총: 19,776 회
평일미사 참례	이번달: 78 회	총: 1,290 회

- ‘회중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지되는 동안 교무금, DSA는 아래와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곳 : 7101 Robinson Church RD,
Charlotte, NC 28215

Pay to the order of :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For : 교무금 Or DSA

- 주일헌금은 매주 온라인 미사를 드리며 조금씩 모아 두셨다가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성당에 오실 때 봉투에 넣어서 한 번에 가져다주시면 본당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 불필요한 만남은 피하도록 합니다.

이후의 결정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3. ‘공부합시다’ 코너 신설

본당 홈페이지에 ‘공부합시다’를 신설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교리 및 성서 공부를 학습지 형식으로 공부하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4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자료수집

본당 행사에 관한 사진, 기록물, 기념품등 자료 수집 중입니다. 자료를 주실 때 부연 설명을 같이 적어 주십시오.

- 기간 : 4월 말까지

- 문의 및 접수 : 서지영 스콜라스티카, 송상협 바오로

5. 사순 판공성사

4월 이후 5월까지 성사보도록 하십시오.

◆ 미사 참례자수: 25 명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230	교무금	\$ 130 (김명희)
		총액	\$360.00

병중에 계신 분	생미사
박은수 라우렌시오, 최영철 프란치스코	박안나와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모임 안내	일시	장소	시간
울뜨레아	매월 첫째 주일	민음교실	잠정 중단
꾸리아	매월 셋째 주일	민음교실	잠정 중단
성령 기도회	매주 금요일	유아실	잠정 중단
요셉회	매월 첫째 주일	유아실	잠정 중단
아가페회	격월 첫째 화요일	Men's Shelter	잠정 중단
생활성가반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유아실	잠정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도문

데이빗리 부동산

투자주택, 상용 부동산, 사업체 매매, 투자개발 상담

이근모 베네딕토 704) 408-9947
Email: dlee4989@gmail.com

G.F.J

Refrigerator, Electrical, Heating/AC
일반 A/C & Heater, Hot Water Tank 설치 및 수리

최우식 (704) 771-8507
최 베로니카 (704) 771-0785

깔끔하고 정성 가득한 홈메이드
반찬류, 젓갈류, 김치 주문 받습니다.

813-362-0479

문의 : 김춘진 루시아

최기호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 업무, 경영상담, IRS 감사대변

스테파노 Ki-Ho Choi, CPA

704.847.7208 • Fax: 704.847.7236
2210-A Crownpoint Executive Dr. Charlotte, NC 28227

ROPPONGI

RAMEN BAR. KOREAN FRIRD CHICKEN

일본식 라면바, 한국 양념치킨

Tel: 980-339-5353
9626 Monroe Rd, Charlotte, NC 28270

KEVIN LEE 704-858-6080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사업체 보험
건강 보험(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생명보험
wminsure.com ★ ncwisemtn@gmail.com

Largest selection of Fine International Food
신선한 야채, 과일, 생선, 육류 등 다양한 인터네셔널 식품



Super G Mart Everyday 8:00am - 9:30pm
7323 E. Independence Blvd. Charlotte, NC 28227 / Tel. (980) 321-4048



대박 한국식당

Mon-Sat: 11am~9pm
Sun: Closed

980-272-6363

6908 Matthews-Mint Hill Rd, Mint Hill, NC 28227

JP CHIROPRACTIC & POSTURE
Better Posture • Better Spine • Better Health

704-841-1701

자세 및 척추교정 • 좌골 신경통 • 허리, 목 디스크 질환
어깨, 무릎, 발목 등의 사고 및 통증 • 두통 손발 저림
임신중 척추 통증 치료 • 교통 사고 및 운동, 직장 상해

박정필 척추신경 자세 건강 클리닉

kw SOUTHPARK
KELLER WILLIAMS.

황정선 올리비아
공인중개사 / REALTOR®

(704) 557-6942
Olivia.hwang@redbudCLT.com

Han's US 태권도

704-752-9400

6225 Blakeney Park Dr. #100 A Charlotte NC 28227

Dragon Champion 태권도

704-992-1955

13024 Eastfield Rd. #A-400 Huntersville, NC 28078

엄선된 최상의 식재료로 승부수를 던진다.
신선함을 지키기 위한 고집!

S O M I S U S H I

3104 Weddington Rd #100, Matthews, NC 28105
www.somisushi.com • Phone: (980) 245-7024

화,수,목,일: 11AM-2:30PM, 5-9PM
금,토: 11AM-2:30PM, 5-10PM 월요일: Closed